

연령통합고령사회 Issue & Focus


연령통합고령사회연구소
 Ewha Institute for Age Integration Research
EIAIR
 ISSN 2586-5692(Online)

제 4 호

발행일 2018. 10. 31 / 발행인 정순돌

발행처 연령통합고령사회연구소 (0376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이화여자대학교 SK텔레콤관 5F 504-1호 TEL.02.3277.2235

Policy & Law

연령통합형 고령사회의 문화정책 방향



정정숙 박사
전주문화재단 대표이사

1. 문명의 열매인 고령사회

선사 시대를 거쳐 역사 시대가 시작된 이래로 의로 및 의식주를 비롯한 문명의 발전은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켜왔다. 연장된 수명은 한 때는 그 사회의 발전을 상징하는 척도이며 미덕이었다. 그러나 농경사회를 벗어난 20세기에는 인구 증가가 가속화되면서, 고령은 도시가 해결해야 할 이슈가 되는 역설적 상황에 처했다. 그리고 정신과 감성을 표현하는 문화는 물질문명을 선도하기 보다는 문명을 향유하거나 비판하는 후발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왔으므로 문명의 거대한 흐름을 전환할 동력이 되는 것은 쉽지 않다.¹⁾

국가들은 20세기 중엽에는 인구과잉에 대처하여 출산율을 낮추는 정책을 모색하고 권장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부터 선진국에서는 오히려 저출산율로 인한 노동인구 부족으로 국외 노동력 유입 등 다각적인 정책을 강구하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 등 유럽에서 발생한 난민 테러사건 등 오히려 반대급부를 발생시키고 있어, 이러한 정책들의 효과는 낙관할 수

1) 『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연구』에서 저자는 문화의 가치를 미적, 오락, 공감, 치유, 역사, 상징, 교육, 창조, 경제산업적 가치 등 다각적으로 언급함. 말미에 제시된 창조와 경제산업 가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가치가 기존의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측면에 강점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물론 미래 유망산업으로 문화콘텐츠·게임이 41개 가운데 하나로 선정(2020년 유망산업, 산업연구원)되어, 문화예술의 경제적 가치가 주목되고 있지만, 여전히 문화의 본질적 가치는 미학적 아름다움이나 감수성 제고, 자존감 고취와 사회통합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 것임. 사람 사이의 마음을 여는 통로로서 문화예술은 타인과의 소통과 신뢰의 가치를 배우고 키우는 과정으로 사회적 자본의 형성에도 기여함. 양건열, 2014, 『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pp 210-237 참조.

없다.²⁾

국제연합(UN)의 경제사회이사회 인구분과에서는 고령화가 세계의 각 국가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이며, 이로 인해 대부분의 사회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인구통계를 발표하고 있기도 하다.³⁾

따라서 '백년 교육대계'라는 구호와 '장기적인 발전방안'과 같은 먼 앞날을 내다보는 정책적 수식어들이 생산되고 선호되지만 실질적으로 앞날을 예측하기란 요원하다. 풍요와 건강과 편의를 추구해 온 인간의 발전 욕구와 그 실천의 결과인 고령화 사회에 고령층은 새로운 빈곤과 질병과 불편의 시대를 인내할 수 있을까. 고령층을 포함한 이 사회의 모든 세대의 개인들은 어떤 문화정책에 의해 풍요와 건강과 편의를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

2. 고령사회에 동반되어야 할 문화정책

우리나라는 2017년 하반기에 이미 고령사회에 접어들었다.⁴⁾ 고령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노동인구 부족을 해결하고, 그 부담을 덜기 위해 취업능력이 있는 고령층 노동자의 활용 정책이 요망된다. 즉 생계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는 고령층에 대해서는 '청년고용촉진법'과 같은 수준에서 인구 14%의 고령 비율에 맞게 취업전략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취업만이 연령통합형 사회 고령층의 필수충분조건은 아니다.

건강하고 경제력이 있는 도시와 농촌의 고령층에게는 20여년의 여가 시간에 향유할 문화프로그램 등이 설계되기를 기대한다. 신체가 불편하고 경제력이 없는 도시와 농촌의 고령층에게도 동일한 기간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최적의 문화정책이 제공되어야 한다.

고령층의 인권과 경제권과 문화권을 중시하는 연령통합형 사회를 지향하고 조성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문화정책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 고령층에 대한 고정되고 부정적인 인식론적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둘째, 문화권을 향유하기 위한 접근성의 강화이다. 셋째, 복지시설과 문화시설에서 제공되는 문화프로그램의 양적 확장과 유형별 다양성의 확보이다. 넷째, 고령층의 문화활동을 컨설팅해 줄 수 있는 문화매개자 양성과 배치 및 매개자 양성 프로그램이 고령층에게도 열려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각각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령층 내부의 연령별, 건강상태별, 경제력별, 거주 지역별 구분과 그 구분에 맞는 문화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인식론적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한다.

도시와 농촌의 고령층이 다르고, 60대와 70대와 80대의 고령층이 다르며, 경제력과 건강상태에 있어서 고령층 내부에 명백히 편차가 있다. 즉 고령층은 단일집단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령층이 늙어서 추하고 느리며, 불쌍하지만 가까이 가고 싶지 않으며, 과거만 되새기며 자식을 그리워하는 존재로서의 이미지가 방송을 통해 유포되고 재생산되고 있다. 방송에서 보여주는 스테레오 타입으로서 고령층은 농촌의 어머니들이다. 그녀들은 굽은 허리로 밭에서 일을 하거나 경로당에 모여 식사를 한다. 가끔 자식 자랑도 한다. 따라서 도시의 고령층은 고령으로 인식되지 않거나 특수한 계층으로 여겨질 정도이다. 부분적인 고령층이 전체로 오해되고 있는 것이다. 이 고령층의 이미지가

2) 유럽지역에서 난민의 테러사건 등이 계속되자 난민을 거부하는 국가들의 선언이 잇따르고 있음.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과 영국의 캐머런 총리도 '다문화주의의 실패'를 선언했고, 오스트리아, 독일, 스웨덴 등은 난민을 거부하고 있음. 조선일보/ 2016/07/28일자 기사 참조

3)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인구분과(<http://www.un.org/esa/population>)에서는 'World Ageing 1950 ~ 2050'(2002년 발표)을 통해 고령화가 전 세계 국가 모두 예외 없이 적용되는 보편적 현상임을 지적

4) 한국은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2000년 이후, 2017년에 고령사회가 됨. 기존에 고령사회 진입까지의 시간이 가장 짧았던 일본의 25년을 앞지른 17년 만의 고령사회 진입임. 통계청은 1997년 장래인구추계에서 2022년에 고령사회 진입을 예측했으나 5년이 앞당겨짐. 경향신문 2017/09/03일자 기사 참조

20세기 중반 이래로 사회 인식을 점령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 필요성은 시급하기 때문에 미디어 분야의 모니터링 등 문화정책이 필요하다.

방송의 모니터들은 주로 30~50대로 구성된다.⁵⁾ 여기에 고령층 모니터요원들이 투입되거나 혹은 고령층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독립적으로 고령 모니터단을 구성할 수 있겠다. 고령층 대상 혹은 고령층이 등장하는 방송프로그램을 모니터링 하여, 고령층에 대한 왜곡된 스테레오 타입을 각인시키는 고리를 차단해야 한다. 대신에 다양한 고령층의 삶과 활동을 보여주도록 대체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고령연예인의 셀럽마케팅과 유사하게 지역에서 생활문화동아리 활동을 하는 일반 고령층들의 셀럽화와 마케팅도 가능할 것이다.

둘째, 문화권을 향유할 수 있는 정보나 문화시설에 대한 접근성 강화 정책이 필요하다. 정보 접근성을 위해서는 주로 인터넷 검색용 온라인 정보망 설치를 우선시한다. 그러나 70대 이상의 고령층은 대부분 인터넷 검색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에 접근하지 못한다. 따라서 TV 방송이나 마을방송에서 정례적으로 매주 평일의 낮 시간대에 공연과 전시와 행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어야 한다. 또한 고령층 대상 큰 글씨 정보지나 신문 안에 문화 및 생활정보를 담아 배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정보지는 비영리성이므로 반드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주민자치센터나 경로당, 복지관, 여성회관의 고령층들이 공연과 전시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매주 1~2회 정도 정례적으로 셔틀버스를 운행해주는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정착되어야 한다. 극장이 없는 시군에 설립된 소규모 영화관인 작은 영화관도 지역주민들이 저렴하게 이용하고 있는 시설인데, 지역의 고령층 이용이 저조한 이유는 이 작은영화관에 접근할 수 있는 이동수단이 없기 때문이므로, 정기적인 셔틀버스 제공이 시급하다.⁶⁾

셋째 고령층이 이용하는 주민자치센터, 경로당, 복지관, 여성회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문화프로그램들이 양적으로 확장되고 내용적으로 다양화되는 문화정책의 지원이 필요하다. 경로당의 경우 고령층이 같이 점심식사를 하게 되는데, 식사와 함께 문화프로그램이 세트 제공된다면 바람직할 것이다.

게다가 대부분의 시설들은 강사료 등을 감안하여 참여자수를 제한하거나, 관리자의 편의상 강의실 사용 시간을 제한하므로 문화프로그램이 양적으로 충분하지 않다. 또한 악기연주 프로그램 같은 경우, 지역에서는 고가의 장비 등이 없어서 다양한 학습이 불가능하기도 하다. 강사료를 최대한 활용하고, 고가 장비의 중고 구매와 대여 등의 채널을 활용하여 고령층이 학습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의 다각화가 필요하다. 또한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는 스포츠분야의 프로그램 다각화도 문화적인 삶을 즐길 수 있는 필수요소로서의 건강유지에 반드시 필요하다. 예컨대, 태권도장의 경우, 여성고객이 희소하므로, 고객 스스로 5명 이상의 팀을 꾸릴 수 있을 때 학습이 가능한 구조여서, 포기하게 된다. 생활체육이 전국에 모세혈관처럼 확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고령층의 경우 여전히 문화관련 스포츠 활동 참여가 제한적이다.

넷째 문화 활동의 경력이 없는 고령층과 중장년층이 새로운 삶에 도전하기 위한 문화 활동을 시작하고자 할 때, 그 잠재능력을 발현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문화 컨설팅 인력으로서의 문화매개자 양성과 배치 정책이 필요하다. 현재 지역문화 전문 인력이 육성되고 있으나, 주로 20~40대에 국한되고 있다. 물론 지역문화 전문 인력의 육성 프로그램 자

5) 방송의 모니터요원 모집 공고를 보면 기본적으로 연령제한이 없지만, 응모접수를 인터넷으로만 하는 사례가 대다수여서 70대 이상의 고령층은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실제 선정된 지상파방송 모니터의 경우, 약 55세 정도가 최고령인 형편임. 특정 세대를 지목한 기수별 '5기 청소년방송모니터(2017년)' 모집은 있지만 상대적으로 고령층 방송모니터 모집은 전혀 없음. 한국직업방송의 모니터의 경우 직업방송의 특성상 시청자인 18세 이상 ~ 65세 미만으로 자격을 제한하고 있음.

6) 작은영화관은 2010년 1개에서 출발, 2017년에는 31개까지 확장됨. 극장이 없는 시군단위에 총 100석 미만의 2개관으로 구성됨. 거리적 접근성에 취약한 고령층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운전을 제공하는 지역민에게 '작은영화관 서포터즈 상'을 수상할 것이 제안되고 있음. 채지영, 2017, 『작은영화관 성과평가 기본구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p.79 참조

체의 역사도 짧다.⁷⁾ 이 전문 인력 중 일부를 고령층 시설에 배치하는 것도 의미가 있으나, 특히 이 문화매개 전문 인력의 육성에 있어서도 고령층이 선정되고 고령층에게 교육의 기회가 제공되도록 열린 플랫폼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화컨설팅 등 문화 전문 인력 혹은 문화매개자가 지역별, 전국적으로 연합회가 구성되고 프로그램을 공유할 수만 있다면 다양한 고령층을 위한 최적의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과 응용과 축적이 가능해질 수 있다.

3. 연령통합 고령사회의 문화정책을 보완할 민간과 타 분야의 정책들

정부 등 공공부문의 문화정책은 1년 단위로 확정·수행되기 때문에 유연성이 부족하다. 따라서 민간 혹은 종교시설 등의 주도적이고 유연한 문화 활동이 기대된다.

현재 전국의 종교시설들은 신도와 비신도를 따지지 않고, 문화프로그램에 참여시키고 있으며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⁸⁾ 또한 고령층 복지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만일 복지 프로그램이 의식주 제공 중심이라면 이제는 의식주에 문화향유권을 더하는 방향으로 발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설의 로비와 식당에 음악과 미술작품이 있고, 그 음악과 작품들이 수시로 교체된다면 고령층의 시각과 청각의 민감성이 강화되고 심리적인 평안과 행복감도 증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단순하고 수동적인 문화권을 넘어서서 그들이 원하는 수요조사를 통해 수요를 발굴하고 그에 알맞는 문화예술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면 더 할 나위없는 고령기를 향유하게 될 것이다.

한편 고령층의 행복이 유년 및 아동층과 청장년층에게 순환되기 위해서는 여성부나 교육부의 교육정책이 필요하다. 고령층에 대하여 인권모독이나 학대를 하는 것은 범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교육해야 한다. 또한 고령층이라고 해서 상대적으로 연령이 적은 자녀나 동료나 이웃들에 대해 연령을 근거로 언어폭력을 사용하는 등 폭력적인 관점과 습관을 근절할 수 있도록 결혼, 부모, 자녀 양육교육이 시행되어야 한다. 폭력적인 부모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거의 절대적이며, 그 자녀도 시간이 흐르면 폭력적 고령층이 되는 폭력의 계승이 이루어진다. 폭력적인 자녀에게 받게 될 학대는 고령층 부모인 자신들이 뿌린 씨앗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씨앗들이 뿌려지지 않도록 인권교육은 여성가족부와 교육부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 아무리 많이 해도 과하지 않을 것이다.

7) 지역문화전문인력양성사업은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된 이후 2015년부터 시작됨. 2015년에는 전국 5개권역에서 235명이 양성됨. 김홍규, 2015, 『지역문화전문인력양성사업 발전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p.54 참조

8) 『종교시설의 문화적 활용방안』에 따르면 전국의 90,749개의 종교시설 중 30%의 시설이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종교시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연 프로그램에 대한 설문조사의 만족도는 4.28점(4.5점 만점)으로 높게 나타남. 정정숙, 2008, 『종교시설의 문화적 활용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p.5, pp75-76 참조

고령사회와 문화: 프랑스 문화정책이 주는 시사점



손 동 기 박사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초빙연구원

고령사회에 필요한 노후시간 사용의 질(quality)에 대한 고민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것은 의료기술의 발달과 생활환경의 개선으로 개인의 평균수명이 증가하고, 한편으로는 출산율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고령화 속도만큼이나 기록적인 낮은 출산율로 인해서 고령화 사회가 된지 18년 만인 2018년 올해 전체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14%가 넘는 고령사회에 진입을 했다. 흔히 인구고령화와 관련한 문제로 노인인구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더 주목해야 할 것은 노후를 보내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우리 사회는 아직 노후의 삶에 대한 변화를 대비한 사회적 준비가 부족하다. 이를 크게 두 가지로 보고자 한다.

첫째, 경제적 준비이다. OECD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노인빈곤율(46.7%)은 어느 문제보다 시급하게 해결을 해야 할 문제이다. 이처럼 경제적으로 노후 준비가 되지 못한 노인들은 노후에도 여유로움 보다는 '바지런한 삶'을 요구 받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노인들의 고용률이 30.6%이고, 일하기를 원하는 55~79세 노인들은 2018년 기준으로 64.1%로 지난해에 비해서 1.4%가 늘어났다고 한다. 왜 이렇게 한국의 노인들이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히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가 가장 큰 이유이다. 즉 경제적 준비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노후에도 자신을 위한 삶에서 여유를 찾기란 어렵다.

둘째, 삶의 디자인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다. 통계청의 조사에서 58.2%의 노인들이 여가(취미)활동을 즐기며 노후를 보내고 싶다고 나타났다. 이런 인식들이 늘어나면서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닌 '어떻게 오래 사느냐'가 중요해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먹고 살기 위해서 노후에도 열심히 일해야 하는 노인들의 삶의 질은 낮을 수밖에 없다. 한국의 노인들은 젊은 때와 같이 열심히 일하는 단조롭고 소극적인 일상을 보내며 자신들이 원하는 여유 있게 취미활동을 즐기는 삶을 즐기고 있지 못하다. 때문에 현장에서 만나본 많은 노인들은 '사람 사는 게 다 비슷하지, 뭐 특별한 게 있겠어.'라며 자조적인 답을 하는 경우가 참 많았다. 이렇게 노인들이 대답을 하는 이유로 첫째는 물론 앞에서 언급한 경제적 인 문제로부터 비롯된다. 하지만 더 주목해야 할 점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더라도 노후에 주어진 일상을 어떻게 디자인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즐기는 삶에 대한 경험의 부재라고 할 수 있다. 현 노인세대는 살아오면서 여가인식과 참여경험 부족(여가경험 부재, 청년기 88.2%, 장년기 76.0%)이 매우 부족하다. 때문에 한국의 노인들은 즐기는 노후 보다는 바지런한 노후를 경제적인 이유에서나 사회·문화적인 이유에서 요구 받고 있다. 물론 노인들이 원하는 삶이 아닌데도 말이다. 그럼 이들의 삶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사회적 준비와 노력이 필요한가?

현장에서 만난 많은 노인들은 ‘나도 내가 이렇게 노후를 보낼 줄 몰랐고, 이런 노후를 원한 건 아니야.’라는 말들을 참 많이 했다. 그리고 노후에 대한 기대를 조금이나마 가졌다는 표현과 함께 현재의 삶을 아쉬워했다. 그럼 한국의 노인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싶을까? 그리고 하는데 있어서 경제적인 어려움 이외에 다른 무엇이 있을까? 이러한 의문에 대해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윤소영 박사는 노후에 만족스런 삶을 위해서 반드시 문화 및 여가활동이 요구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프랑스 사례에서 일말의 해답을 찾아보고자 한다.

노인들의 자기주도적 삶을 통한 다양한 삶을 지향하는 프랑스 문화정책

프랑스의 인구고령화는 여가까지 면에서 한국의 경우와는 다른 점이 많다. 우선 인구고령화의 속도가 매우 느리다. 한국이 고령화사회가 되는데 20년도 안 걸리는데 반해 프랑스는 100년이 넘게 걸렸다. 그만큼 사회의 변화를 대응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 한편 인구고령화 문제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요인인 출산율의 경우에 프랑스는 2017년 기준 1.96명으로 유럽에서도 매우 높은 국가에 속한다. 이처럼 프랑스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고령화의 문제로 고심이 깊어가는 우리나라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공통점이 있다면 생활환경의 개선과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개인의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노후가 길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의 노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노후의 시간에 대해서 매우 자기주도적인 삶의 설계를 통해서 다양한 삶을 영위하고 있다. 물론 프랑스의 노인들이 비교적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프랑스 노인들이 모두 문화적 욕구가 많다고 할 수는 없다. 즉 문화를 즐기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이 아닌 개인이 갖고 있는 사회적·문화적 자산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다. 때문에 프랑스 정부는 문화정책을 펼치는데 있어서 정책의 대상자 혹은 수혜자들의 사회적·문화적 특성을 잘 수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프랑스 정부의 문화정책 수립의 목적은 문화에 대한 접근성('accès à la culture')을 높이거나 기회의 평등('égalité des chances') 측면뿐만 아니라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프랑스 정부는 노인들의 노후의 시간활용과 관련해서 개인의 자유시간 활용의 자기결정권을 지켜주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노력을 살펴보기 전에 프랑스에서 노인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노인에 대한 정의를 바탕으로 사회정책 혹은 문화정책이 새롭게 수립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노인의 정의를 사회학적으로 새롭게 정의하고 각 노인의 특성에 맞는 사회·문화정책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특히 프랑스 사회학자 Serge Guérin은 그의 저서 “L'invention des seniors, 노인의 발견 (2007)”에서 노인의 세 가지 유형을 제시했다.

1. Les SeTra (Seniors Traditionnels) : 55세, 70세 또는 85세를 일컫는 말로 다소간 비슷한 행동양식을 유지하는 이들이다. 이들은 보수주의자이며, 확실한 가치에 우선순위를 두며, 과시적인 소비를 하지 않는다. 상속이나 유산은 이들이 어떠한 결정을 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목적이다. 한편 이들은 부담스러운 부채에 대한 문제가 거의 끝난 이들로 비교적 소비가 넉넉한 이들이다. 또한 이들은 대부분 자기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수적 우위에 있는 부류이다. (프랑스는 대략 1,200백만명)

2. Les Boobos (Boomers Bohèmes) : 베이비붐 시대에 태어난 이들로 젊은 노인(jeunes seniors)로 축복받은 세대로 세기의 승리자로 불린다. 이들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있었던 프랑스의 호황기로 불리는 “영광의 30년, Trente glorieuse”의 혜택을 받은 이들이다. 이 때 임금은 빠르게 상승하고, 편안한 은퇴를 누릴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가 만

들어 졌다. 게다가 실업의 걱정도 없이 좋은 질의 교육 혜택도 받았다. 이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소비를 한다. 자식의 결정에 있어서도 관여를 하며 경제적으로 돕기도 한다. 이들은 경제력이나 문화적 영향력 측면에서는 주도적인 그룹이다. 이들은 유행을 주도하는 세력으로 점점 부상하고 있다. 2008년 프랑스 국립통계청(INSEE)에 따르면 어느 연령층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는 대략 800백만)

3. Les SeFra (Seniors Fragiles) : 미디어에서 가장 덜 다루는 노인들이다. 왜냐하면 이들은 가장 약한 이들이고, 미디어에 나타나는 모습에서 가장 덜 올바른 노인들의 모습을 가진 이들이기 때문이다. 이들의 소비는 매우 한정된 부분에서 높게 나타나는데 의약품, 안전관련 혹은 거동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 혹은 물품이다. 이들로 인해서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나고 있고, 앞으로도 생겨날 것이다. (프랑스는 대략 150만명)

프랑스는 노인들도 건강하고, 새로운 것에 도전을 하고자 하는 노인부터 돌봄이 필요한 노인까지 각 특성에 맞게 노인들을 재정의하고 이에 맞춰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노인들에게 단순한 소득보장 차원을 넘어선 다양한 문화-사회 프로그램을 통한 노후의 생활의 질까지 보인(사회·문화)복지정책의 범주에서 다루고 있다. 이미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프랑스 노인문화정책으로는 노인클럽(les clubs du 3ème âge), 노인대학(UTA : Université de troisième âge), 은퇴자 클럽(club des retraités) 등이 있다. 이러한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활동프로그램은 지역 단위로 운영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하게 제공이 되고 있는 여가 및 교육 활동을 통해서 프랑스 노인들은 풍성한 노후를 보내고 있다.

개인의 취향을 존중하며, 문화향유에 대한 접근성을 중요시하는 프랑스 문화정책

프랑스는 시민의 문화 접근에 대한 권리를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1946년 헌법전문에 명시하고 있다. 이는 문화향유하는 것이 단순히 시민 개인이 자유시간에 즐기는 활동의 개념이 아닌 사회적 가치로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1998년 7월 29일에 채택된 '사회배제방지(la lutte contre les exclusion)'법 55장 140조에 서는 '교육과 문화를 통한 기회의 평등권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적 목표'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프랑스의 문화정책의 중심에는 개인의 문화·예술향유를 위한 접근성(Offrir à tous un accès à la culture)뿐만 아니라 이용도 즉 향유를 어떻게 보장하느냐 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프랑스의 문화정책의 중심에 지방자치단체가 있고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의 문화·예술향유 증진을 위한 정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큰 틀과 방향을 설정하고, 지도하는 역할에 충실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프랑스는 활기차고 즐거운 노후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문화정책을 펼쳐오고 있다.

최근 한국의 노인들도 먹고 사는 문제를 벗어나 멋진 노후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생기면서 문화예술을 통한 여가활동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 이러한 노인들의 삶의 인식의 변화에 맞춰 문화정책도 노인들의 풍요로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은 강화되고 있다. 2013년 제정된 '문화기본법(2013년 제정)'의 제4조 국민의 권리에서, 모든 국민의 문화권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들의 문화 및 여가생활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한편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2015년 제정)'의 제 14조 사회적 약자의 여가활동 지원에서, 노인은 사회적 약자로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많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적 노력은 개인이 꿈꿔왔던 노후를 보장하거나 다양한 노인들의 개인의 문화적 취향을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즉 현재의 문화정책이나 사회정책은 노인 개인 '나'보다는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찾을 수 있다. 또한 노인들을 위한 우리나라의 문화정책은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닌 '할 것'을 만들어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여전히 한계를 가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고령사회를 맞아 우리나라 문화정책도 이제는 노인들에게 ‘할 것’이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을 제 공함으로써 노인들의 삶의 질과 행복감을 증진시키는데 있어서 실질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때가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문화향유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프랑스 문화정책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바가 크다.

참고문헌

윤소영, 손동기 외, 2016, ‘고령화 시대 문화의 역할과 과제: 고령자를 중심으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손동기, 2018, ‘고령화 사회 노인의 삶을 돌보는 여가정책에 대한 전망과 방향’, 공공정책.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통계청: <https://kostat.go.kr/>

고령 사회에 대응하는 문학교육의 역할



류수열 교수

한양대학교 국어교육과

1. 노인 예찬과 노인 혐오의 거리

국가인권위원회가 얼마 전 ‘노인 인권 종합 보고서’를 공개했다. 지난해 전국의 청장년층(18~64세) 500명과 노인층(65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후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노인 응답자는 26%에 달한다. 여기에는 경제적 어려움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제적 어려움은 그 자체만으로도 중요한 변인이 되겠지만, 여기에서 유발되는 또 다른 변인도 있을 것이다. 차별이 그것이다. 나이로 인한 차별은 21.1%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난다. 경제 및 건강 상태가 나쁠수록 차별을 경험한 비율은 더 높다.

이러한 조사 결과에 대해 조금이라도 수긍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그것은 최근 청년 세대에서 쓰이는 노인 혐오 표현들이다. 틀니를 딱딱거리는 벌레라는 뜻으로 쓰는 ‘틀딱충’, 매미처럼 시끄럽게 떠드는 할머니라는 뜻의 ‘할매미’, 국가에서 주는 연금으로 생활하는 벌레라는 뜻의 ‘연금충’이 대표적이다. 과격하고도 선정적인 이들 신조어들은 노인들에 대한 청년 세대의 차별 의식이 반영되어 있는 혐오 표현들이다.

사회적 약자들에게 혐오 표현들이 따라붙는 것은 일반적이다. 장애인, 이주 노동자, 여성, 그리고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맹목적 비난을 드러내는 혐오 표현은 일일이 예거하기도 어렵다. 특히 ‘틀딱충’이나 ‘연금충’을 포함하여 ‘~충(蟲)’ 계열 혐오 표현을 모아 보면 무슨 곤충 도감을 보는 듯한 인상을 준다. 이 정도라면 가히 하나의 하위문화(subculture)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근래의 혐오 표현 현상이 과거와 다른 점 중의 하나는 노인이 여기에 포함된다는 점이다. 노인에 대한 혐오 표현이 갑작스럽게 증가한 것은 비교적 근래의 일이다. 과거에는 노인을 어른으로 대접했던 것이 인류의 문화적 전통이었다. 이는 동서양의 문화적 차이를 떠나 일치되는 현상이었다.

이제 노인에 대한 서양과 동양의 문화적 전통을 보여주는 몇 가지 사례를 보기로 하자. 먼저 서양이다. 약 2,000년 전 로마의 키케로는 노인들을 배의 키잡이에 비유하면서 그 지혜의 가치를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젊은 선원들이 하는 일은 하지 않지만, 키잡이가 하는 일은 더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네. 큰일은 체력이나 민첩성이나 신체의 기민성이 아니라, 계획과 명망과 판단력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네. 그리고 이러한 자질들은 노년이 되면 대개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 늘어난다네.(천병희 역, 2005 : 31)

동양이라고 해서 다를 것은 없다. <한비자(韓非子)>에 나오는 이야기에서 비롯된 ‘노마지지(老馬之智)’라는 고사가 이를 대표한다. 춘추 시대 제(齊)나라 환공(桓公)이 정벌을 끝내고 지름길을 찾아 귀국하다가 길을 잃었다. 이때 명재상 관중(管仲)이 늙은 말의 지혜가 필요하다며 즉시 늙은 말 한 마리를 풀어놓았다. 관중의 예측대로 그 말을 따라 행군을 하니 곧 큰길이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문화적 전통은 견고하게 유지되었다. 이뿐만이 아니라 대개의 문학 작품에서 노인은 지혜를 가진 자를 표상한다. 주인공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를 구해주는 조력자는 대개 노인이다. 고상안의 <효빈잡기(效癡雜記)>라는 글은 노인은 곧 지혜의 소유자라는 등식을 표 나게 강조하는 우화를 담고 있다. 늙은 쥐가 젊은 쥐들에게 박대를 당한다. 그런데 젊은 쥐들이 하루는 한 여인이 맛있는 음식을 장만해서 술에다 넣고 무거운 돌로 뚜껑을 눌러놓고 나간다. 도무지 뚜껑을 열 방법이 없었다. 그때 젊은 쥐들이 늙은 쥐를 찾아가 방법을 물어보니 그간의 박대가 꽤 씹었던 늙은 쥐는 가르쳐줄 수 없다고 버틴다. 이에 젊은 쥐들은 사죄를 하고 비법을 전해 듣는다. 술에 달린 세 개의 발 중 하나가 얽혀 있는 곳을 파내서 술이 기울어지면 술뚜껑이 저절로 열릴 거라는 비법이였다. 늙은 쥐의 말대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노인을 예찬하는 글과 이야기들이 널리 읽히고 전수되었을까? 만일 반영론적 설명에 기대면 실제로 문화적 전통이 그러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반대로 볼 수는 없을까? 즉 당시에도 노인들이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었기에 그들을 옹호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쓴 글이고 젊은이들을 타이르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것이다. 모든 노인들이 어른으로 대접받는 상황이었다면 굳이 만들어질 필요가 없는 이야기였을 터이다. 요컨대 노인에 대한 예찬은 역설적으로 노인에 대한 차별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노인에 대한 최근의 혐오 표현은 그것이 노골화되었긴 하더라도 오랜 문화적 전통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차이가 있다. 그것은 하위문화의 저항성이 건강함을 잃어버리고 이성적 통제의 범위를 벗어나 감정적으로 혐오를 표하는 병적 위험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하위문화의 가장 주요한 기능은 그 문화의 향유자들로 하여금 집단적 결속감과 고유한 정체성을 제공해주는 데 있다. 젊은 세대들은 이러한 혐오 표현을 통해 자신들의 세대적 정체성을 추구하고 그 정체성을 공유하면서 집단적 결속감을 강화해 가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혐오가 정서적, 감정적 반응이라는 데 있다. 혐오가 심리적으로 자동화된 심리적 증상인 한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과는 거리가 멀 수밖에 없다. 그만큼 혐오는 위험한 비수를 품고 있다 할 것이다. 이런 현상이 일시적 유행이라면 차라리 다행이지만 더 지속되고 더 강화되면 우리는 조만간 심각한 세대 전쟁을 목도하게 될 것이다.

2. 고령 사회에 대응하는 문학교육의 역할

노인 혐오의 이면에는 세대 간 불통의 문제가 놓여 있는 듯하다. 앞서 언급한 보고서에서 노인층의 40.4%가 세대 간 소통의 어려움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노인층의 51.5%, 청장년층의 87.6%는 서로를 ‘대화가 통하지 않는 상대’로 보는 것으로 나타난다. 대화 불통에 대해서 노인층에 비해 청장년층이 더 심각하게 반응하는 것이 주목된다. ‘청년 혐오’는 없고 이른바 ‘노인 혐오’만 있다는 사실과 동전의 양면을 이루는 현상이라 할 것이다.

우리 사회가 이런 상황에 대응해야 하는 것은 당위이다. 그러나 사회적 차원에서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를 논하는 것은 능력 밖의 일이다. 다만 필자의 전공 분야인 문학 교육에서 할 수 있는 일 두 가지를 밝히고자 한다.

하나는 세대 간 소통이 가능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세대가 공유할 수 있는 이야기의 레퍼토리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앞선 세대가 배웠던 문학 작품을 자식 세대와 손자 세대가 배운다면 그것만으로도 훌륭한 소통의 매개가 될 것이다. 굳이 이런 역할을 강조하는 것은, 정전의 권위에 대한 의심으로 인해 누구나 읽어야 하고 배워야 할 작품이라는 개념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최근의 동향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지혜에 대한 학생들의 갈망을 자극하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노인이 지혜의 표상이었던 과거가 있었다. 지혜는 단순히 나이나 경륜이 자연스럽게 보장해 주는 미덕이 아니다. 지혜는 일반적인 지식과는 다르다. 기본적으로 삶의 운영에 대한 메타적 지식, 즉 지식에 대한 지식이다. 이를 갖추기 위해서는 자신이나 공동체에 대한 반성적 혹은 성찰적 사고를 요구한다. 사적 이해관계들 사이, 자신과 타인의 이해관계들 사이, 자신과 집단의 이해관계 사이, 장·단기적 안목들 사이, 그리고 상황 적응, 상황 조성과 변화, 상황의 선택 사이에 균형을 이루어, 공공선을 실현해 내는 방향으로 자신의 묵시적 및 명시적 지식들을 적용하는 것이 지혜다. 문학은 다른 그 무엇보다 이러한 목표를 효율적으로 성취할 수 있게 하는 문화적 양식이다. 이러한 문학의 미덕을 활성화하여 젊은 청년 세대들로 하여금 나이나 경륜과 무관하게 이러한 지혜를 갖도록 한다면, 노인을 보는 눈도 달라지고 노인들과의 소통 가능성도 높아지지 않을까 한다.

박범신의 소설 〈은교〉에서 예수 아홉의 시인은 이렇게 말한다. “젊은 너희가 가진 아름다움이 자연이듯이, 너희의 젊음이 너희의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것이 아닌 것처럼, 노인의 주름도 노인의 과오에 의해 얻은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동명의 영화에서 이렇게 변주된다. “너희 젊음이 너희 노력에 의해 얻어진 상이 아니듯, 내 늙음도 내 잘못으로 얻은 벌이 아니다.” 그렇다. 누군가는 늙는다. 노화는 자연이다. 그렇다면 세대 간 소통을 위해서라면 젊은 세대들이 미리 늙어 지혜를 얻는 것도 한 방법이다. 문학교육의 한 역할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 국가인권위원회(2018), 노인 인권 종합 보고서
 키케로, 천병희 역(2005), 노년에 관하여 우정에 관하여, 숲
 고상안, 김남형 역주(2007), 효빈잡기, 계명대학교출판부

서울시복지재단,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와 MOU 체결 및 어르신정책 모니터링단 활동

연령고령사회연구소는 연령통합고령사회연구소는 연령통합 사회·문화 확산 아젠다와 관련하여, 2018년 6월 서울시 복지재단 남기철 대표와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 성미선 회장과 MOU를 맺고 고령친화도시 '어르신정책 모니터링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 어르신정책 모니터링단은 명예직 자원봉사자로서, 서울시의 주요 현안과 관련된 주제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 활동을 통해, 향후 활동이 가능한 연구 자료 구성과 정책 제안 도출을 지원한다. 어르신정책 모니터링단은 청년이 어르신은 인터뷰 하는 것 외에도 반대로 어르신들이 청년들을 인터뷰하여 영상을 촬영하고 수집하는 활동도 함께 실시하며, 2018년에는 어르신 모니터위원 40명과 청년 모니터위원 20명이 위촉되었다.



이 같은 민관상호협력체계 하에, '2018년 서울시 어르신정책 모니터링단 중간모임 및 연령통합활동'이 2018년 8월 6일 오후 12시에 서울여성플라자 시청각실에서 개최되었다. 연령통합 활동의 첫 번째로 세대 간 이해 도모 및 긍정적 관계 형성을 위하여 영화 '엄마의 공책'이 상영되었다. 두 번째 활동으로는 홍영란 박사(한국교육개발원)가 메모로(MEMORO: 기억의 은행) 프로젝트에 관한 교육을 진행하였다. 메모로란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기억을 사회적 문화적 유산으로 삼아 미래세대에게 전달하기 위해 젊은 세대와 어르신들 간에 만남과 대화의 기회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활동이다. 구체적으로, 동 활동에는 인터뷰 동영상을 촬영하고 수집하여 메모로 웹사이트에 올려 공유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제3차 아셈 노인인권 콘퍼런스 참여

연령통합고령사회연구소의 정순돌 교수는 국가인권위원회 주최의 제3차 아셈 노인인권 콘퍼런스(3rd Pasted Graphic 9.tif ASEM CONFERENCE on Global Ageing and Human Rights of Older Persons)에 참여하였다. 2018년 9월 4일부터 7일까지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개최된 동 콘퍼런스에서, 정순돌 교수는 '국내 노인에 대한 연령차별의 원인과 해결: 인권적 관점(Causes and Solutions of Discrimination against Older People in Korea: Human Rights Perspectives)'에 대해 발표하였다.



하계 통계특강 개최

연령통합고령사회연구소는 2018년 7월 27일부터 28일 이틀 동안 광화문 토즈모임센터에서 하계 통계특강을 개최하였다. 하계 통계특강의 주제는 ‘R-language를 활용한 Text-mining’으로, 최은정 교수(서울여자대학교 정보보호학과)가 강연자로 참여하였다.



국제세미나 개최

연령통합고령사회연구소는 2018년 10월 24일 오전 11시에 이화여자대학교 포스코관 251호에서 국제세미나를 개최되었다. 동 국제세미나는 장철준 교수(단국대학교 법학과)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Roberta Flowers 교수(미국 Stetson University, College of Law)가 ‘Current Issues on American Elder Laws’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제11차 연령통합포럼 개최

연령통합고령사회연구소가 주최하는 제11차 연령통합포럼이 2018년 10월 12일 오후 4시에 이화여자대학교 포스코관 251호에서 개최되었다. 동 포럼에는 윤소영 연구위원(문화연구본부 문화여가정책실)이 ‘연령통합사회를 준비하는 문화정책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정정숙 대표이사(전 주문화재단)가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 ▶ This research institute provides *Age Integration Aging Society Issue & Focus* in order to introduce domestic and/or international research trends of age integration, best research, related laws and policies to academia and institutions.
- ▶ *Age Integration Aging Society Issue & Focus* is issued quarterly. If you want to sign up for a subscription, please contact us by email, sskeiair@ewha.ac.kr.

